

생활방사선 체험콘텐츠 도입

전북119안전체험관 내 국내 최초로 VR·로봇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전명소인 전북119안전체험관 내에 국내 최초로 생활방사선 체험콘텐츠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협업으로 추진하는 생활방사선 체험콘텐츠 개발사업은 우리주변에 실존하고 있는 생활방사선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재미있게 배워보는 안전체험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지난 2016년 8월 송하진 도지사와 한수원 조석 사장 간 체결된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지난 2년간 한수원 내부의 사업타당

성 검토 및 사업자 선정 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주)에서는 R&D 예산 15.4억원을 투입하여 전북119안전체험관 내에 생활방사선 체험콘텐츠를 개발·설치하고, 전북도(소방본부)에서는 시범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콘텐츠는 VR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생활방사선 개념 이해, 우주·지각 속의 자연방사선 실물 계측, 일상생활 주변의 방사선량 확인 등의 콘텐츠를 체험자가 마치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3년 개관한 전북119안전체험관은 시설규모, 체험콘텐츠, 운영방식 등에서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4년 연속 연간 체험인원 15만명 이상을 달성하였고, 전체 체험객 중 약 30% 정도가 타 시도 체험객일 정도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및 자유이용시설로 지정되면서 안전체험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타 지역 체험객이 매년 증가하여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등 전북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119안전체험관이 이렇게 선종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화된 체험시설 운영에 있다. 스토리텔링 방식의 재난종합체험 등, 비상탈출 헬리콥터스 위기탈출체

험동, 미취학아동 전용 어린이안전마을, 전국 최초 물놀이안전체험장 및 생존수영교육장과 같이 각각 특색있는 주제관 운영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체험이 가능해져 유아, 학생, 청소년단체, 직장인, 가족단위 모든 체험객이 안전을 배우고 즐기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지난해 전북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체험객 만족도 조사에서 93.80%의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이와 같은 인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도 마재운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북119안전체험관이 전국제일의 안전명소로 발돋움하여 타 지역 체험관광객 유치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왼쪽부터 김종하 과장, 이민호 국장, 최형원 사무처장, 김수호 팀장.

전북지역 생활체육 진흥 기여

김수호 도 체육정책과 생활체육팀장 등 3명 문체부장관 표창

전북도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3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수호(전라북도 체육정책과 생활체육팀장)와 이민호(장수군체육회 사무국장), 김종하(전북체육회 지역지원과장) 등 3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평소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수호 팀장은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리그 등을 운영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왔다.

또 각종 도지사배 대회와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유치 등 스포츠클럽의 기반조성에 헌신해왔다.

이민호 사무국장은 장수군민의 체

력양성에 관한 사업과 생활체육 보급에 앞장섰다.

특히 어르신(노인) 체육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으며 지도자가 직접 찾아가 가르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과 1인1클럽제를 정착시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하 과장은 전북어르신대회와 여성생활체육대회, 체조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도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 오늘부터 설 명절대비 먹거리 불법 유통 단속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량식품 적절을 위한 성수식품(재수용품 및 농·축산물 등)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반을 편성하여 8일부터 25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 올해 투자·신제품 개발 적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에게 "투자과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라며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 및 시·군 특성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100개소(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50개소, 축산물 제조 판매업 25개소, 농·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대비 먹거리 불법 유통 행위 기획단속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주요단속 내용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산입산출 등) 등이 있다.

또한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정량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하여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ople.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작년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체로 양호'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018년 실내공기질 검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18년 검사대상 선정 시 타 시설보다 높은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조사대상을 조정하여 점검했다.

도내 점검대상 817개소 중 81개소에

대해서 품질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두 시설 모두 어린이집으로, 총 부유세균이 유지기준 800 CFU/m3를 초과한 919 CFU/m3 와 1,066 CFU/m3 로 측정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부적합한 시설은 과태료가 부과되

고 개선조치 한 후 1년 안에 재검을 받게 된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이 강화돼 시설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중 PM-2.5가 신설되고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민감시설은 미세먼지 중 PM-10 기준이 100ug/m3 에서 75 ug/m3 으로 강화된다. /김진성 기자

'도로명 유래로 알아보는 전북의 길 이야기'

도, 책자 7개 시군에 배포

전북도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제도와 시군별 특색 있는 도로명을 스토리텔링 웹툰으로 제작하여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웹툰을 책자로 엮은 '도로명 유래로 알아보는 전라북도 길 이야기'를 제작하여 7개 시군 등에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본 책자는 도로명주소의 세가지 원리, 상세주소, 국가지점번호 등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6편, 태조로·보석로·벽골제로·구천동로·치즈마을길·장류로 등 유래로 알아보는 전북도 길이야기

14편,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도는 시군과 협조해 초등학생,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 제도에 친숙해 질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도서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민원실, 다중집합장소 등에 비치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도 최춘성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는 건물뿐만 아니라, 육교·대피소·캠핑장·정류소 등 주소표시가 없는 다양한 사물에 대하여도 도로명 방식 주소 체계를 확대할 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정보가 자율주행차·드론 배달 등 4차 산업 혁명 기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중요 공간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